

#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 동향[11.27~12.3]

2022.12.05.[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 동 자료는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의 일일 미디어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작성  
(아프간 현지 및 국제 언론보도)

## 1

## 정무/대외관계

### □ 주아프간 파키스탄 대사대리 공격시도 등 사건사고 동향(언론보도 종합)

○ (카불) 12.2 오후 경내를 산책 중이던 주아프간 파키스탄 대사 대사대리에 대한 무장괴한의 총격이 있었으며, 대사대리는 피해를 면했으나, 대사관 경비원 1명이 중상을 입음. 파키스탄측은 이를 ‘공관장 암살 시도’로 규정, 탈레반측에 즉시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를 향해 유엔 회원국들의 외교시설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함.

- 파키스탄 대사대리 공격 직전, 인근에 위치한 Hezb-e-Islami 정당의 지도자인 Gulbuddin Hekmatyar\*의 카불사무소 근처에서는 자살 테러가 발생,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함.

\* 1990년대 Rabbani 아프간 정권 시절 총리이자, 아프간 주요 파벌 지도자

○ (사망간주) 11.30 Aybak시의 마드라사(종교학교)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19명이 사망, 2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 것으로 파악됨.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음.

○ (팍티아주) 11.26 Zazai Aryub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보안군 2명이 사망하였으며,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음.

□ 미, 알카에다·TTP 지도부 4명 ‘글로벌 테러리스트’ 명단 추가(12.3, AP)

- 미 국무부는 12.1 아프간에서 활동중인 테러단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알카에다 인도지부(AQIS) 및 TTP\*(파키스탄 탈레반) 지도부 4명을 ‘특별지정글로벌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함.
- 이들은 Osama Mehmood AQIS 수장, Yahya Ghouri AQIS 부수장, Muhammad Maruf AQIS 모병책임자, Qari Amjad TTP 부수장으로, 아프간에서 활동하지만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지대 등에 은신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10차 Herat Security Dialogue, 두산베 개최(11.30, ToloNews)

- 아프간 평화·안보 관련 논의를 위한 제10차 Heart Security Dialogue가 11.29-30간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프간 전 정부인사, NGO, 학계 및 미국, EU 및 인접국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함. 2012년 이래 아프간전략연구소(AISS)가 Herat 주에서 매년 개최하였으나 탈레반 집권 이후 처음으로 국외에서 개최됨.
- Tomas Niklasson EU아프간특별대표는 탈레반은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EU는 지속해서 아프간 여성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Karen Decker 주아프간 미 대사대리는 미국은 평화로운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간인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최고지도자, 카불 주지사 등 임명(11.30, Pajhwok Afghan News)

-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11.30 Akhundzada 최고지도자 지시에 따른 인사교체를 발표한바, Mohammad Qasem Khalid 전 국경·부족부 부장관을 카불 주지사로, Maulvi Zahir Khan Khadim을 고등교육부 부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힘.

□ 탈레반, VOA·REF/RL 등 서방 라디오방송 차단(12.2, Washington Post, ArianaNews)

- 탈레반은 미 정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아프간 언론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정정보도 원칙을 위반하고 한쪽의 주장만이 담긴 일방적인 방송을 송출했다고 지적하며, 'Voice of America' 및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방송을 차단함.
- 앞서 Mullah Khairullah Khairkhah 탈레반 정보문화부 장관대행은 11.30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에서 언론이 선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슬람 형법이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은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탈레반 법무부, 토지 반환에 관한 법령 발표(11.30, Hasht-e-Subh Daily)

- 탈레반 법무부는 Akhundzada 최고지도자가 명령한 토지반환에 관한 법령이 11.28 승인되었다고 발표한바, 동 법령은 아프간 전 정부 및 영향력있는 자가 빼앗은 아프간 내 토지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법무부·도시개발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임.

□ 파키스탄 외교장관, 카불 방문(11.30, Al Jazeera 등)

- Hina Rabbani Khar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11.29 카불을 방문하여 Muttaqi 탈레반 외교장관 대행과 면담을 가졌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교육·보건·무역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 주체코 아프간대사관, 탈레반 정권과 협력 개시(11.28, Pajhwok Afghan News)

- 외교부 부대변인은 11.28 주체코 아프간 대사관이 자신들의 정권을 대변하고 있으며 체코 정부와도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지 아프간 국민들에 필요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간에 11억불 이상 지원(12.1, ArianaNews)
  - 미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은 11.30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2021년 8월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아프간에 11억여불을 지원한바, 국제개발처(USAID)가 8억 1,200만불, 국무부가 3억 2천만불을 지원하였으며,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의 단일 최대 기여국이라고 강조함.
  
- Qush Tepa 운하 건설 1단계 완료(12.3, Pajhwok Afghan News)
  -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600억 아프가니(약 6.8억불) 규모의 Qush Tepa 운하 건설 프로젝트 중 1단계 공사(108km)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5,500명의 직접 고용 및 수천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었다고 공개함.
  - 2018년 시작된 총 길이 280km, 폭 100m의 운하 건설 프로젝트로 Balkh, Jawzjan, Faryab주 약 50만 헥타에 물을 공급할 예정
  
- 탈레반 경제부총리, 중국측에 Mes Aynak 광산 채굴 촉구(11.27, Pajhwok Afghan News)
  - Mullah Abdul Ghani Baradar 경제부총리는 11.26 중부 Logar주에 있는 Mes Aynak 광산을 방문, 중국 국영기업인 MCC 관계자들을 만나 세계 2위 구리 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해줄 것을 촉구함.
  - MCC는 아프간 전 정부와 Mes Aynak 광산 채굴을 위해 30년간 28.3억불 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물 발견으로 작업이 더딘 상황
  
- 탈레반 관세수입 전년 대비 2배 증가(11.30, ToloNews)

- 재무부는 최근 7개월(3~9월)간 관세수입이 610억 아프가니(약 6.9억불)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부패감소와 상품의 투명성 등을 언급함.

#### □ 아프가니스탄-인도 간 항공회랑협정 체결(11.28, Ariananews 등)

-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1년 간 140억 아프가니(약 1.6억불) 규모의 아프간 상품들을 선박을 통해 인도로 수출해 왔으나 인도와 항공회랑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조만간 아프간 상품이 항공편으로 인도에 수출될 것이라고 공개함.
- 한편, Hamdullah Nomani 탈레반 도시개발주택부 장관대행은 Bharat Kumar 주아프간 인도 대사대리와 면담을 가진 후, 대변인을 통해 인도측이 이전 정부 때 시행하다 정치적 변화로 중단되었던 20개의 프로젝트를 재개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공개함.

#### □ 파키스탄, 자국이 건설한 아프간 의료시설에 의약품 지원(12.3, ArianaNews)

- 파키스탄은 자국이 아프간에 건설한 카불 Jinnah 병원, 로가르주 Amanullah 병원, 잘랄라바드주 Nishtar 신장전문센터에 의약품을 지원한바, 12.2 기념식에는 Qalandar Ibad 탈레반 공공보건부장관대행, Abdul Qadir Patel 파키스탄 보건부 장관이 참석함.

#### □ OCHA, 내년 인도적지원 대상 2,830만명으로 집계(12.3, ToloNews)

- OCHA는 수년째 지속되는 가뭄과 심각한 경기 침체로 2023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아프간인은 2022년 2,440만명보다 390만명 증가한 2,830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 유엔은 2023년 70개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총 510억불 지원을 요청함. 끝.

